ECONOMIC FOCUS

2026. 6. 8

Global Macro Team

허진욱 Chief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한성민 Research Associate
sungmin0108.han@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미국 5월 고용 서프라이즈의 시사점

A longer pause, not a hike

- 5월 고용 서프라이즈는 Fed가 물가 안정에 집중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때까지 현재의 금리 동결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여유를 제공해 줌
- 다만, 5월 고용만으로 Fed 인상 확률이 의미 있게 높아졌다고 판단하지 않음.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핵심 물가 압력이 추가로 상승하거나, 확산되는 증거가 필요

미국 5월 신규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7.2만명을 기록하여, 시장 예상(8.8만명)의 두 배에 달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다. 또한, 지난 3월과 4월 수치도 각각 2.9만명과 6.4만명씩 상향 조정되어,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 증가 폭이 18.8만명으로 대폭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레저/접객 (7.0만명), 정부(5.2만명), 의료/사회복지 (4.7만명), 건설 (1.7만명) 등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월과 같은 4.3%와 61.8%(4개월래 최저 수준)를 유지했다. 특히,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4%로 예상에 부합하였는데, 이는 물가목표 2%에 상응하는 임금 상승률(3.5~3.8%)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예상을 상회한 4월 구인 건 수(Job openings)에 이은, 5월 고용 서프라이즈는 미국 노동시장이 지난해 하반기의 둔화세에서 벗어나 개선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Fed가 dual mandate 중 물가 안정에 집중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때까지 현재의 동결 기조를 보다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여유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5월 고용 서프라이즈로 당사가 예상하는 금리 인하 시점(올 12월과 내년 3월)이 지연될 리스크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당사는 5월 고용 서프라이즈만으로 Fed의 금리 인상 확률이 의미 있게 상승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노동시장 개선은 금리 인상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물가 압력이 추가로 높아지거나, 확산되는 증거가 필요한데, 1) 4월 핵심 PCE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하회하며, 아직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여타 품목들로 확산되는 조짐이 제한적이고, 2) 임금 상승률이 물가목표에 상응하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지난 '22~23년과 같은 wage-price spiral 위험이 낮고, 3) 5월 고용 서프라이즈의 일부는 북중미 월드컵과 예년보다 빨라진 메모리얼 데이 연휴 등의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